

북경기행 (Ⅱ)

A Trip to Beijing

최 창 규
건축사사무소 신진

11월3일 우리 일행은 두명씩 5개조로 나누어, 각 분과에 참석키로 했다. 각 분과 역시 통역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물론 사전에 발표문들이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었다. 흠과 건축!! 참으로 잘 생각한 주제이다. 유인물의 조사내용을 보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30%가 흠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흠건물은 없는 곳이 없다고 한다. 오직 우리만이 콘크리트나 철조등에만 열중했지,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 부터 건축의 원초라고 할 생토건축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여간 이러한 발표문이나 유인물들은 빠짐없이 잘 챙겨서 가지고 돌아왔다. 오늘 저녁엔 서원반점에서 중국건축학회초대 만찬이 있다고 한다. 초청장이 인쇄되어 각자에게 배포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일행이 대판에서 포교수가 준 중국건축학회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중국 각지방에서 온 건축가들이 몹시 부러워했다.

오후의 각자 시간에 나는 혼자서 천단에 가보았다. 40년 전 자주 왔던곳 천단공원이다.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때는 한적한 교외였는데 현재는 시가속이 되어있어 실망했다. 젊은나이에 가끔 감상적이 되면 이곳에 와서 숲속에서 홀로 하-모니카를 불곤 했던 곳이다.

천단이란 그때 절대권력자인 천자도 1년 2회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선농단 대리석대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풍년을 기원했다는 곳이다. 정원형의 기년전이며 속어로 황제의 제단이라고도 한다. 남북에 대문이 있고 기년전을 중심으로 황궁우 구전이 있다. 건물 모두가 특히하고 또 아름답다. 일본의 桂離宮은 부르노다우트라는 독일건축가가 일본건축의 백미라고 했고 일본 건축가 吉川가 한국의 중요 건물을 동양의 파르테논 이라고 했고, 불란서 선교사 마테오릿지가 천단을 중국아닌 인류의 조형물의 진주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다. 모름지기 각 민족은 자기민족이 건립한 건물의 진가는 너무도 익숙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 보고 비소로 그 진가를 발견한 예는 허다하다.

늦가을의 창공에 우뚝 서있는 높은 원형의 기년전 유약기와의 진남색의 화려함은 절대 권력의 힘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북경의 야경 (좌에서 두번째 필자)

황궁우의 주위 담은 회음벽이라고도 한다. 그 벽에 귀를 대고 있으면 내부에서 속삭이는 말소리도 잘 들린다. 그래서 그 담을 회음벽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그 당시의 장인들이 음향계산을 다 했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나도 그 벽에 몇번이고 귀를 대어 보았더니 벽내에서의 말소리가 잘들렸다. 그 벽은 전석과 흠으로 그 두께가 60cm나 되는데 어떠한 물리적 작용으로 이렇게 말소리가 들릴까 아무리 찾아 보아도 다른 어떤 장치도 없었는데 말이다. 백색 대리석으로 층층의 기단을 쌓아 올리고 많은 조각이 난간에 새겨져 있다. 그 정교함이란 놀랄 지경이다.

북경의 건물중에서 규모나 양식을 떠나서 제일의 건물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천단을 들겠다.

돌아오는길에 전면의 석두호 동부근을 두리번거리려 보았다. 옛적엔 이 부근은 우리의 인사동과 같은 골동품 가게들이 모여있었고 이어서 어느나라에도 있는 벼룩시장이 있어서 유명했던 곳이다. 벼룩시장이란 흠친 물건들만이 매매되는 곳이다. 그들의 말로는 흑의가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없는것이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곳이다. 필자는 각국의 이런 거리를 많이 보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거리는 별로 없었다. 바로 그 거리가 변해서 정리된 각종의 상점으로 되어 있었다. 현재는 유리창이라고 부르면서 필묵과 다류의 상가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물들이 옛이나 이제나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건물군의 창건은 15세기라면 거의 500년 가까이되

북경의 건물중에서 규모나 양식을 떠나서 제일의 건물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천단을 들겠다.

돌아오는 길에 전면의 석두호 동부근을 두리번거리 보았다. 옛적엔 이 부근은 우리의 인사동과 같은 골동품 가게들이 모여 있었고 이어서 어느 나라에도 있는 벼룩시장이 있어서 유명했던 곳이다.

는 건물을 그대로 잘 보존시킨데는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서원호텔만찬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왕부정가에 들렀다. 왕부정가는 우리의 명동이나 동경의 은좌에 해당되는 북경의 가장 변화한 거리이다. 옛날 이곳에는 백십자란 유명한 다방(茶方)이 있었고 교차로에 북경 미술대학생들이 건장한 남자가 나체로 큰 구렁이를 잡아 비트는 조각상이 서 있었다. 그 제목은 “소공(劓共)” 즉, 공산당을 쳐부순다는 뜻이라고 했지만 학생들 간에는 은어로 그 구렁이는 공산당이 아니고 동양규(일본을 말함)라고 했다. 그 진의도 모르고 일본군정은 그 조각을 거리에 세워놓게 했다. 지금 생각해도 우습지만 옛날에도 나는 속으로 호쾌함과 중국인들의 깊은 마음을 느꼈다. 당시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장코로”라고 부르고 팔시했으나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을 동양규라고 했고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土肥原 대장은 “土匪元”(투비유원) 도적의 우두머리라고 썼다. 한여름이면 고목이 우거진 이 왕부정거리를 젊은 남녀들의 산보로였는데 현재는 그 고목들이 다 없어지고 4~50년생 정도의 가로수가 서 있다. 건물들도 많이 변했으나 그 유명했던 동풍대시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북경에서 제일 큰 약방, 책방, 서화점이 거의 이 거리에 있다. 이 거리는 변모했다고 하지만 변화하기는 옛이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이다. 거리의 간판에 홍색이 많아졌다던가 일본상품 간판이 도처에 많이 눈에 뜨인다든가 나도 모를 한자의 약자가 많아 졌다든가 출퇴근시의 대로에 대홍수처럼 고요히 흐르는 자동차의 대행열등 옛날에 못보던 풍경에는 아연할 뿐이다. 북경의 출퇴근시 몹시 이르다. 아침 7시면 어느 거리에나 이 자전거의 대행렬이 소리없이 흘러간다. 오후 5시쯤 되면 또 이 자전거대행렬이 아침과 같이 지나간다. 수천 수만대가 소리없이 흘러갈 때면

소음보다도 더 공포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 때는 대부분의 대·소형자동차들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린 우리에게 재고해 볼 만한 대중대량교통수단일지도 모른다.

자전거교통에는 이점도 많다. 소음이 없다. 유류가 필요 없다. 장소를 적게 차지한다. 사고가 나도 그리 다치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가격이 적게든다. 주차장이 적다, 행동반경이 제법 길다. 체육(운동)에 도움이 된다. 직흥적으로 생각해도 대도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적격한 것만 같다.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는 연구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거리에 보행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우리와는 좀 다른것 같다. 우린 누군가에 쫓기는지 초조하고 모두가 바쁘다. 나는 북경거리에서 달리는 사람은 못보았다. 천천히 당당히 걸고 있었다. 예를 하나들면 별로 자동차도 많지않은 곳에 교통신호등도 있고 교통순경도 서있었고 횡단도로의 표시도 선명했는데 시민들은 신호등도 무시하고 횡단보도도 아니곳은 태연히 걸어가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있는 교통순경도 아무말없이 본체만체하고 서있었다. 물론 교통신호등도 붉은불이었다. 이런 것을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교통 순경에 다가가서 당신은,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순경의 대답이 또 걸작이다. “내가 단속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자신이 이런 시설을 보고 스스로가 지켜주길 기대하는 것이고 단속을 하면 반감만 날 뿐이다!” 나는 또 한번 놀랐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우리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우린 중국인의 만만적(만만테) 기질이라고는 하지만 무언가가 확실히 있는것만 같았다. 그들은 어수룩하면서도 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언행이나 모든 용모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자신만만한 기개랄까엔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중원사상을 가지고 있다. 没法子(메이화-즈) 사상도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란 뜻이니 우주의 중심이라는 우주관이고 没法子是 일종제념사상같이 보이지만 운명론같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제념이 행복의 요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동양철학의 근원일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 중국을 대국이라 부르는 것을 많이 들었다.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어느모로 보아도 (국토, 인구) 대국인것 이지만 그들은 중국이라고 중자를 택한 여유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악착같이 부르는



友誼賓館玄閣 소련인이 지었다함

만주쪽 길림성 변경지구에 조선족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 인구 약60만 정도로 우리말로 신문도 발행하고 우리만의 대학도 있다고 들었다. 이 동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몹시 궁금하던차이고 또 그 자치구가 백두산 등산을 관할한다고 들었고,



전안문광장 소수민족상 앞에서

것과의 차이가 바로 청년층의 자신만만한 당당한 태도로 나온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 보았다.

서원호텔에서 만찬에도 처음보는 이름모를 요리와 술이 나왔다. 만찬이 무르익은 무렵 우린 국제여행사 간부와 건축학회 회장에게 이 심포지움이 끝나고 일주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서안에 가서 진시황의 분릉이나 지하병마총을 구경해야하겠고 또 만주(그들은 동삼성이라고 한다)에 가서 변경에 있는 조선 소수민족자치구와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관광철이어서 항공편이 없다느니 호텔이 만원이라느니 하며 갈 수 없다는 표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건축학자도 아니고 이번 여행의 주목적은 서안과 백두산가는데 있었다. 그들의 태도에 실망하고 재삼 부탁을 해 보았다. 그래도 그들은 웃으면서 회피하는 눈치였다. 이것은 후담이지만 우리는 일국비자의 내용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에게 준 비자는 결국 지역제한비자였던 것이다. 북경 관할지역 이외는 못간다는 비자였다. 출국시 북경공항에서 직원이 비자만은 떼어서 걸어넣고는 아무런 도장도 없이 출국이 허가되었으니 우리여권에는 중국에 갔다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참 여행도 제법 많이했지만 이런 비자는 난생 처음 보았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말을 못하고 우리에게 웃으면서 내일 봅시다. 노력해보겠소! 하면서 회피하느라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를 지금 생각해도 우습기만 하다. 필자는 하도 당시 실망해서 다음날엔 중국민항 본사에 가서 서안과 만주행 비행기표를 물어 보았더니 개인이나 단체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호텔도 얼마든지 예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표들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허가 증명서가 있어야 팔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허가증을 받을 곳은 중국건축학회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비자내용을 알고 불쾌하지 않게 완곡히 거절하는데 별 도리

가 없는것이나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왕부정대가 입구에 있는 북경반점(북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호텔임) 로비에 커다란 유리창아래에 청수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장백산물이라고 써 있었다. 이 장백산이란 중국명의 백두산인 것이다. 즉 천지의 물은 매일 공수해다 여기에 비치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한것인데 우리 일행은 이게 웬 떡이나 하면서 큰 컵으로 천지의 성수(聖水)을 마셨다는 점이다. 그들도 이 천지수를 무공해 성수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학 3학년 때 몇몇 학우들과 백두산 등산을 했고 천지의 물로 밥도 지어먹었고 세수도 한 적이 있으나 여기 북경에 와서 50년만에 천지의 물을 마신다니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고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귀국하면 벗들에게 자랑하리라고 "우린 천지의 물을 마셨다고" 마음속에 되새겼다.

만주쪽 길림성 변경지구에 조선족 소수민족 자치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 인구 약 60만 정도로 우리말로 신문도 발행하고 우리만의 대학도 있다고 들었다. 이 동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몹시 궁금하던차이고 또 그 자치구가 백두산 등산을 관할한다고 들었고, 광개토왕비도 그 부근에 있으니 꼭 보고 싶었는데 실행되지 못 해 아쉽기만 하다. 하기가 우리가 올 수 없는 적성국가에 와 있는 것 만도 기적이 아니겠는가 자위도해보았다.

시내에는 延吉冷麵屋이렇게 있다. 이북 교포가 하고있다고 하고 냉면은 물론이고 보신탕도 있다고 하나 우린 김치가 먹고 싶어 그 집엘 갈려고 했으나 학회는 못간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입국비자를 준 이상 출국할때까지 신변보호할 의무가 국제법상에 있다. 그들이 회의첫날부터 이북대표와의 접촉을 몹시 신경쓰고 있는것 같았고 숙소도 서로 먼곳에 배정했고 더우기 이북친구들은 북경에 공관을 가지고 있고 시내교포를 만나면 무슨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데서인지 완강히 거절하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갔다 주겠노라고까지 했다.

오늘 11월 3일 저녁은 서울에선 월드컵 한일축구전 이 있는 날이다. 모두가 이 축구시합에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 길이 없다. 밤 늦게 호텔 직원에게 시합결과를 알고 싶다고 물었더니 그가 국제여행사의 호텔과전소에서 알아보고온다고 했다. 1 : 0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큰 소리로 전원 집합축배다 하면서 떠들썩 했다. 나는 이웃방에 있는 일본 명고육대 宮野教授를 불러서 "야-우리가 축구에 이겼단 말이야!" 선배님 축하합니다. 저도 축배를 들지요 하며 시무룩하면서 억

중국의 지방건축가들이 중앙의 인민대회의장에서의 만찬은 아마도 귀향하면 큰자랑거리요, 명예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겐 오직 호기심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건축가들을 이런 곳에서까지 접대를 하느냐는 점이다.

지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우리 일행은 아-오늘은 참 기분 좋은날이다 하면서 늦게까지 마셨다. 사람이란 국외에 나가면 더욱 애국적이 되는 모양이다. 과연 우리가 서울에 있어서 이 소식을 알았다면 또는 TV를 보았다하더라도 이렇게 즐거워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석하면서 축배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우기 우웃방엔 일본인들이 수십명이 있으니 더욱 신날 수 밖에 없었다. 몇년 만에 얻어낸 월드컵 티켓이나 말이다. 다음날 아침 인민일보 조간에 커다란 사진과 시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우리의 정효환선수와 일본 桂谷(하시라다니) 선수와의 접전의 사진이고 최순호의 어시스트를 허정무가 골인시켰다고 써있었다. 이 신문을 본 11월 4일 아침은 하늘도 더욱 푸르렀고 태양도 빛나 있었다. 나는 그 신문을 들고 宮野教授 방에 갔다. 그는 그의 장자와 같이 있었다. “아-이 사진과 이 보도를 좀 보아라”했더니 그는 “아-선배님 너무합니다. 어제 저녁 축배도 같이 들었는데 누굴 골려주는 겁니까”하면서 차를 내 놓았다.

11월4일 이날 아침 잠을 일찍 깨어서 창밖을 내다 보았더니 수명의 시민이 대로변 약간 넓은 공지에서 완만한 동작으로 무용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강명구씨를 깨워서 같이 나가 보았다. 이것이 그들의 태극권 또는 삼십육계 라는것임을 알았다. 우리도 그들의 뒤에서 따라 해보았다. (흥내를 내본 것이다) 약 20분 정도하고나니 제법 몸이 훈훈해 지고 이마엔 땀이 났다. 그들도 우리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가 말을 걸어 왔다. “일본인인가?” “아니다 한국인이다” “오-한국인, 세-세-(射謝) “무엇이 고마우냐” “우리민항기를 돌려 주었고 해군함정도 돌려주었지 않았는가” “아-그것 때문이군요” “이 아침체조는 왜 하는거요?” “우린 태극권 동호인들인데 아침마다 모여서 사범님께 지도를받는

다” 그러고보니 그중 노인이 한분 계셨다. 나이가 86세라고 했는데 아주 건강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술” 담배를 한갑드리면서 덕분에 운동은 잘했다고 하였더니 “뚜오세 뚜오세”(多謝多謝)를 연발하면서 동우들에 한대씩 나누어 주었다. 그들과 우리에게겐 무슨 정치나 사상같은 간격이 있을 수 없고 친밀해 졌을 뿐이고 아무런 서로의 경계같은 것도 없고 그저 이웃끼리의 태도였을 뿐이다. 그들중의 한사람이 타고온 자전거를 보고 “좀 타 보아도 좋으냐고” 물으니 “타보라”기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로수가 우거진 아침의 북경거리를 신나게 달려 보았다. 어제 축구를 이겼겠다. 호쾌한 아침이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북경은 오늘도 쾌청이다.

11월5일 오늘은 심포지움 끝나는 날이다. 오후 폐회식이 있고 건축학회와 국제여행사의 인민대회의장에서 만찬의 초대가 있었다. 인민대회의장! 무언가 무시무시한 이름이다. 우린 TV에서 모택동이나 등소평이 인민대회의를 하는 광경은 본 일이 있지만 바로 그 건물 2층의 대회의장에서 만찬을 베푼다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대단한 대접을 하는 셈이다. 중국각지에서 온 건축가들의 흥분하는 모양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지방건축가들이 중앙의 인민대회의장에서의 만찬은 아마도 귀향하면 큰자랑거리요, 명예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겐 오직 호기심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건축가들을 이런 곳에서까지 접대를 하느냐하는 점이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아량, 여유, 위세를 과장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문광장에 있는 이곳 에는 오늘 저녁 6 시에 가는 것이다. 우린 어제 미리 짜놓고 연락을 해는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청화대학을 방문키로 했다. 북경엔 옛날에도 대학이 많았다. 북경대학, 북경공대, 농대, 사범, 동풍, 연경, 청화대학 명문대학이 아직도 거의다 있다고 한다. 그중 청화대학은 그학교 교풍이 우리의 연세대같은 학교인데 건축과가 창설된것은 약 40년이 된다고 했다.

학교정문엔 벌써 몇 사람의 교수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건축과장인 오교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차를 마시면서 서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교수는 미국 펜실바니아대학에서 40년전에 돌아와서 건축과를 창설한 60세 정도의 온화한 초로의 인물이었다. 오교수를 비롯해서 건축과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북경 도시계획이나 국가건설부문에 직접참여자들이고 실제계획자들 이었다. 우린 향기로운 조롱차를 마시면서 중국의 건축이며 고적보존이며, 교육 등에 대한 구



북경 교외의 농촌(농가의 농부의 모습)

나는 한 역학생에게 “학생은 왜 건축을 택했는가?” “택한 것이 아니고 고교시에 국가적능조사에서 건축과로 가라해서 왔을 뿐이다” “건축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네, 재미있고 나에게 알맞는다고 생각한다. “적능시험이 정확했군!” “하... 그런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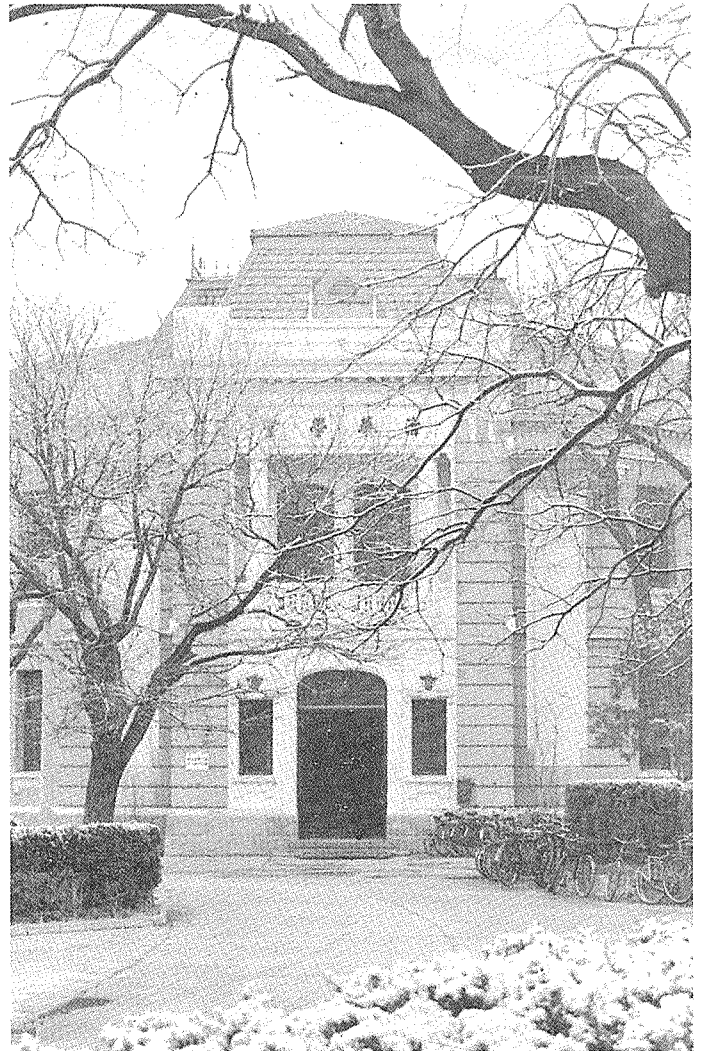
먼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다.

한 교수의 안내로 과내의 도서관, 음향실험실, 역학시험실등을 돌아보았다. 도서실에서 이북 건축회지를 발걸해서 모두가 흥미롭게 보았다. 아주 초보적인 조잡한 회지였다. 더우기 그것도 몇번 오다가 요즈음은 보내주지도 않는다고 안내교수는 말하면서 웃었다.

일행은 직접 강의중인 교실도 들어가 보았다. 나는 4학년설계시간인 교실에 들어갔더니 50세정도의 여교수가 제도지도를 하고 있고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도를 하고 있었다. 여교수는 남색특유의 상하의의 소박한 복장이었고, 항상 미소지우며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여학생은 5명뿐이었다. 나는 한 여학생에게 “너는 왜 건축을 택했는가?” “택한 것이 아니고 고교시에 국가적능조사에서 건축과로 가라해서 왔을 뿐이다” “건축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네, 재미있고 나에게 알맞는다고 생각한다. “적능시험이 정확했군!” “하... 그런것 같아요” 남선생에게 “병역관계는 어찌되는가?” 물었더니 놀라면서 “병역이라니요?” “군대입대말이야” “아- 군대도 적성조사에서 결정되지요. 난 건축만하고 졸업하고 직장배치를 받고 건축만하면 됩니다.”란 대답이다. 나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구나 생각했다. 여기는 우리와 체제가 다른나라임은 모르고 우리나라 생각만하고 한 질문이었구나. 참! 이 나라는 인구가 많으니 군대도 문제없겠고, 모든 것이 통제와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입고시의 열풍이나 취직의 좁은문 따위는 없고 더우기 과외지옥이나 명문대, 치맛바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제도솜씨는 확실히 우리학생들 보다는 못하나 투시도 그리는 방법이 특이한 것이다. 투시도의 채색이나 구도가 동양화 그리는 식이다. 세부보다는 대극적인 어찌면 회화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그 투시도가 아주 멋져 보인다는 점이다. 우린 너무 투시도를 그리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고 같은 방법만 쓰는 것이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다.

음향실험이나 역학실험실의 시설은 아주 훌륭했다. 량하



정화학당전경

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타학과생들도) 우리를 보고 기이한 표정으로 따라 다니면서 말을 걸어왔다. 영어도 우리학생들 보다는 뒤떨어져 약간의 중국어를 하는 나에게 집중질문이었다.

그들은“한국에서 어떻게 왔느냐? “우리 민항기사건은 참고마웠다!” “한국은 여자농구가 대단히 강하더군요!”“당신들은 일본어도 할 줄 아느냐?” “한국건축은 우리와 같은가?” 등등의 산만한 또 직흥적인 질문들이었다. 우리는 상호건축서적의 교환도 했다. 특히 우리가 올림픽 준 서적이 나 배지는 가장 인기품목이었다. 현관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교문을 나왔다. 교실창문에 많은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서쪽 하늘이 빨강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다.

다음호에 연속 함